

최근 남수단의 상황과 기독교 선교

A Recent Situation of South Sudan and Christian Missions

저자 (Authors)	강병권 Byung Kwon Kang
출처 (Source)	Muslim-Christian Encounter 10(2), 2017.9, 185-217(33 pages)
발행처 (Publisher)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이슬람연구소 TORCHTRINITY Center for Islamic Studie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52293
APA Style	강병권 (2017). 최근 남수단의 상황과 기독교 선교. <i>Muslim-Christian Encounter</i> , 10(2), 185-217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220.67.255.***
2021/02/09 (Accessed)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최근 남수단의 상황과 기독교 선교

강병권*

- I. 들어가는 말
- II. 남수단 개관
- III. 남북 수단 분쟁의 역사적 배경과 원인
- IV. 수단으로부터 남수단의 분리와 독립
- V. 남수단의 내전
- VI. 남수단의 기독교 선교 활동
- VII. 한국선교사의 남수단 선교사역 참여에 대한 제안
- VIII. 나가는 말

* AIM Korea 대표

I. 들어가는 말

본 글의 목적은 남수단의 최근 상황과 기독교 선교 상황을 이해하는데 있다. 남수단이 오일과 수자원이 풍부하고 것처럼 오랫동안 기다렸던 독립을 쟁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처럼 내전으로 점철되고 있는가, 영국이 수단 식민 지배를 마치면서 남북수단의 갈등과 상이함을 알면서도 무엇 때문에 이들을 각각의 나라로 독립시키지 않았는가, 여러 반군 집단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으며 그들은 왜 남수단 정부군과 전투를 계속하고 있는가, 내전으로 큰 상처를 안고 있는 남수단인들에게 선교사들은 어떻게 사역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해보고자 한다.

1장에서 필자는 남수단 개관을 다루고, 2장에서 현재의 남수단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수단 역사를 개괄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남북수단 분쟁의 배경과 원인에 대하여 19세기 이전 남북수단, 이집트의 수단 정복으로 생긴 남북 간 이질화, 영국의 식민지배 시기의 남북수단 갈등의 심화, 수단 독립에 따른 남북 간 갈등으로 구분할 것이다. 3장에서는 남수단의 분리와 독립을 다루게 될 것이다. 2005년 포괄적 평화협정 합의와 협정의 체결로 남수단이 국민투표를 하고 수단으로부터 분리 독립한다. 4장에서는 남수단의 내전과 그 경과를, 그리고 남수단 내전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분석할 것이다. 5장은 남수단의 기독교 선교활동에 관해서, 그리고 끝으로 6장에서 한국선교사의 남수단 선교사역 참여에 대한 제안을 할 것이다.

II. 남수단 개관

남수단은 공식적으로 남수단 공화국(Republic of South Sudan)이라 불리며, 아프리카 대륙의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고, 북쪽에 수단, 동쪽에 에티오피아, 남동쪽에 케냐, 남쪽에 우간다, 남서쪽에 콩고, 서쪽에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을 국경으로 하고 있다. 남수단은 2011년 7월 9일 독립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98.83%의 찬성으로 독립 국가가 되었고, UN과 AU(African Union)와 EAC(East African Community)의 회원국이 되었다. 현재 수도는 주바(Juba)이지만 2013년 내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남수단의 중심인 람치엘(Ramciel)로 수도를 이전할 계획이었다. 안타깝게도 2013년 내전이 재발하여 2017년 8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Fragile States Index¹에 의하면 소말리아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붕괴되기 쉬운 나라로 지명되었다.²

남수단 종교 인구의 처음 통계는 1956년으로 올라가는데 그 당시 대다수 남수단인들은 전통종교와 기독교인이었으며 8%만이 무슬림이었다.³ 카우프만(Kaufman)도 남수단인 대다수가 전통신앙을 따르고, 다음으로 기독교를 믿는다고 보았다.⁴ 최근 2012년 12월 18일 퓨 리서치 센터 조사로는 2010년 인구 중 60.5%가 기독교인, 32.9%가 전통종교인, 6.2%가 무슬림인 것으로 나타났다.⁵

1 연합국가 싱크 탱크가 매년 발표하는 자료로서 분쟁과 붕괴의 위험성이 높은 나라들을 돕기 위한 목적이다. https://en.wikipedia.org/wiki/Fragile_States_Index (accessed 30 May 2017).

2 South Sudan,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South_Sudan (accessed 30 May 2017).

3 South Sudan,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South_Sudan (accessed 30 May 2017).

4 Eric P. Kaufmann, *Rethinking Ethnicity: Majority Groups and Dominant Minorities* (London: Routledge, 2004), 45.

5 "Global Religious Landscape Table Percent of Population," *Pew Forum on Religion & Public Life* (18 December 2012) http://www.globalreligiousfutures.org/countries/south-sudan/#/?affiliations_religion_id=0&affiliations_year=2010®ion_name=All%20Countries&restrictions_year=2015 (accessed August 21, 2017).

Ⅲ. 남북 수단 분쟁의 역사적 배경과 원인

1. 19세기 이전의 남북 수단

기원전부터 현재 수단 지역은 고대 이집트, 악숨(Axsum) 왕국, 로마제국의 통치가 있어 왔다.⁶ 최초 기독교 전파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간다게 여왕의 내시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AD 540년 비잔틴 황제 저스티니안(Justinian)이 기독교의 확산을 위해서 이집트를 방문한 후,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마쿠리스(Makuris)와 알와(Alwa) 왕국이 기독교 국가로 합병되었다.⁷

이슬람은 정통 칼리프 시대에 수단 지역으로 진출을 시도했으나 성공적이지 못했다. 652년 마쿠리안(Makurian) 왕국과 조약을 맺으면서 이슬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했고 이슬람왕조 안으로 편입되었다.⁸ 이 조약의 주요내용은 마쿠리안 왕국이 이집트로부터 필요한 산물들을 얻는 대신 수단에서 매년 360명의 노예를 제공하기로 했고 양국의 무역상들을 보호하기로 했다. 그 후 500년간 수단 남부지역 사람들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 나갔다. 아랍 무역상들은 황금과 보석을 채취했고, 10세기부터는 유목민으로 수단에 정착했다. 969년부터 1170년까지 이 지역에 살던 누비아(Nubia) 족은 전성기를 맞이했다. 왜냐하면 누비아에서 뽑혀온 흑인노예군 사에게 의존하던 이집트의 파티마왕조가 누비안족에게 각종 혜택과 이권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171년 살라딘이 파티마왕조

6 김광수, “에티오피아 악숨 문명의 정체성: 아프리카 중심주의적 시각에서,” 『한국아프리카학회지』 제 37집 (2012): 86-91.

7 William B. Anderson & Ogbu U. Kalu, “Christianity in Sudan and Ethiopia,” in *African Christianity: An African Story* ed. Ogbu Kalu (Pretoria: Dept. of Church History, University of Pretoria, 2013), 77-78.

8 서상현, 『아프리카의 이해』 (서울: 다해, 2004), 42-43.

를 점령하자 흑인군대가 해체되었다. 결국 누비아-이집트의 우호 관계는 끝났고, 두 나라는 몇 차례의 전쟁을 겪게 된다. 1253년 이집트의 아랍 유목부족들이 살라딘에 대항하여 폭동을 일으켰는데, 살라딘은 유목부족들을 누비아 지역으로 추방해버렸다. 따라서 이슬람 문화의 아랍유목부족들의 유입으로 이슬람은 자연스럽게 누비아 지역에 들어오게 되었다.⁹

14세기부터는 수단 중부 나일강 지역에 있던 여러 부족과 왕국들이 외부의 무슬림들과 상업적 접촉을 하면서 이슬람화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단 남부 지역은 나일강 중부의 왕국들을 통해서 이슬람을 받아들였다.

19세기 이전 수단 남부는 나일강 주변의 왕국들의 착취의 대상이었다. 16세기 청나일강 주변의 세날(Sennar) 왕국이 에티오피안 산기슭과 누바(Nuba)산맥과 백나일 평원을 침략했다. 17세기 경 수단에 세워진 다르포르 술탄영(Darlfur Sultanate)은 바알 알-가잘(Bahr al-Ghazal) 서쪽에 해당하는 다르 파르티티(Dar Fartiti) 남쪽을 침략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남수단은 카르툼에 있던 중앙정부의 침략에 노출되었다.¹⁰

2. 이집트의 수단 정복과 남북의 이질화

19세기 초 이집트에 무함마드 알리(Muhammed Ali)가 등장하는데 그는 투르크(Ottoman Truks 혹은 Truks)-이집트 제국을 지중해 패권을 차지하는 강대국화 하려는 야심을 가진 자였다. 1820

9 John Iliffe, *Africans: The History of A Contin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55-56.

10 Douglas H. Johnson, *The Root Causes of Sudan's Civil Wars: Peace or Truce* (Kampala: Fountain Publisher, 2011), 2-3.

년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황금과 노예의 공급처인 수단을 침공했다. 이집트는 순차적으로 1820년에 폰지 술탄영(Funj Sultanate)를, 1830년에 카르툼을, 1871년에 상나일(Upper Nile), 1873년에 바흐르 알-가잘, 1874년에 다르푸르를 점령했다.

이집트가 수단을 침공하기 전까지 수단 남부 지역은 북부에 있던 왕국들에 의해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집트가 수단을 침공하고 황금과 노예를 공급을 위해 남부 수단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면서부터 북부수단과 이집트 상인들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들이 남부 수단을 착취하기 시작했고, 이 때부터 수단은 남북으로 이질화되기 시작했다.

남북간 수단의 이질화를 부추긴 다른 사건은 북부 수단의 조세(稅制)제도와 토지정책이었다. 인상된 세금을 내기위해 곡물증산이 요구되었고, 유희지를 더 많이 경작해야 했다. 소작농들은 재배작물을 담보로 곡식을 빌리거나,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소유한 땅을 지주들에게 양도하면서 더 큰 부채를 떠안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세금과 빚에 시달리던 북부 사람들이 새롭게 확보된 남부 수단지역을 개발하려 내려오게 되었다. 즉 북부지역의 세금제도와 토지정책으로 북부수단의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이것은 남부수단의 착취와 종속, 노예사냥으로 이어졌다.¹¹ 노예로 잡힌 남부 사람들은 군대나 공장, 또는 귀족의 종으로 일했다. 점차 북부 수단인들이 남부 수단인들을 노예로 인식하는 편견을 만들어졌고, 남부 수단인들은 북부 수단인들에 대한 공포와 불신, 증오심을 갖게 되었다.¹²

11 조상현, 금상문, “남북 수단 분쟁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7권 제4호 (2013):164.

12 Oliver Albino, *The Sudan: A Southern Viewpoin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77.

3. 영국-이집트(Anglo-Egyptian)의 식민지배와 남북수단 갈등의 심화

이집트의 수단 지배는 1881년에 시작된 이집트의 과중한 세금 부과와 외국 관료들의 폭정에 대해 봉기한 마흐디(Mahdi) 추종자들에 의해 종식되었다. 이 과정에서 1885년 영국사령관 찰스 고든이 마흐디에 의해 살해되었던 것을 빌미로 1898년 영국은 이집트와 함께 마흐디 추종자들을 전멸하고 이집트와 함께 수단 식민통치(1898-1955)에 들어갔다.

마흐디 통치 시에 노예무역이 이슬람법과 전통이란 이름으로 합법화되고, 노예들은 마흐디 군대에 보충되거나 노예로 팔려 국고에 귀속되었다. 또한 노예제도는 미개한 남부사람들을 이슬람으로 개종시켜 문명화시키는 것으로 미화되고 합리화되기도 했다. 마흐디즘(Mahdism)은 반부족주의, 반제국주의, 이슬람 독립공화국, 수단 민족주의의 태동이었으며, 지금까지 민중동원, 이슬람 통일국가건설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¹³

영국-이집트에 의한 수단의 공동 통치는 그 당시를 이집트를 지배하던 영국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영국은 수단의 남북 간 관계를 개선하려는 목표보다는 남부 지역이 아랍화, 이슬람화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남북을 분리시키는 정책을 추진했다. 동시에 남부 수단을 동아프리카의 다른 영국식민지들과 묶어 유대를 강화시키려는 정책도 있었다. 1920년 ~ 1930년 사이 영국의 수단 정책 중 남북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¹⁴

13 이종택, “수단 내전 과정 연구: 이슬람화와 남부독립 투쟁,”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7권 1호 (1997):156.

14 Ibid., 156.

- 1) 현재 남부에서 일하는 이집트 및 북부출신의 관료들을 남부 기독교학교 출신으로 대체하고 부족할 경우 영국 및 유럽인들로 보충하고 이를 위해 기독교 선교단의 남부 파견을 권장한다.
- 2) 북부 상인의 남부 거주 제한 및 신규 거주 허가를 금하고 대신 그리스계, 유대계, 아프메니아계 상인들의 거주를 권장한다.
- 3) 아랍어 대신 남부언어 및 영어 사용을 권장한다.
- 4) 남부인의 아랍어 상용, 아랍 복장 착용, 아랍 관습, 이슬람 사원 신축 등을 금하고, 남부인의 자긍심을 심어 주고, 아랍화에 대한 적대감을 조장한다.
- 5) 남북 행정구역 경계에는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비 거주 중립지대를 설정하여 남북의 왕래를 차단한다.

1차 세계대전 이전, 북부수단의 행정권은 군인에서 민간인으로, 군인과 경찰은 이집트인에서 북부 수단인으로 교체되었다. 그러나 남부 수단은 마흐디의 군대 철수로 영국-이집트 연합군, 프랑스, 에티오피아, 벨기에 등 열강의 각축장으로 변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은 이집트의 수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을 점령하고, 남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했다. 우선 영국은 이집트가 수단의 영유권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근거로 수단이 과거처럼 이집트에 충성할 것을 주장했지만 남수단인들은 반응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영국-이집트 정부도 투르크-이집트 제국 시절 남부 수단을 노예군사 공급처로 취급했던 것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었다. 군대로 끌려간 남수단인들은 노예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북

부 수단 사회에서 격리되었고, 심한 인종적 편견을 견뎌야 했다.¹⁵

1945년 영국은 남북 수단을 분리 독립시키려는 정책을 변경했다. 그것은 2차 세계대전 후 이집트가 수단을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영국이 남북 수단을 각각 분리 독립시킬 경우, 북수단이 경제력을 잃고 이집트로 합병될 것을 염려했다. 이같은 영국의 정책은 1920년부터 일어났던 여러 민족주의 운동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집트와 통일을 촉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수단연합회(Sudan Union Society), 영국 점령에 항거하는 백기회(White Flag Society), 민족주의 열망을 불러온 총동맹회(Graduated General Congress), 마흐디 추종자들에 의해 조직된 움마정당(Ummah Party), 이슬람 국가건설을 목표로 하는 무슬림형제단(Muslim Brotherhood) 등이 조직되었다.¹⁶ 영국은 이때부터 수단의 엘리트 계층이 주도하는 독립운동들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독립을 위한 민족주의 운동의 과정에서 남부 사람들은 무시되고 배제되었다. 남수단 사람들은 자신들에 대한 북수단의 태도에 큰 반감을 갖게 되었다. 남수단 사람들도 남부 지역에 있는 나일강의 풍부한 수자원과 비옥한 토지가 수단의 독립에 매우 중요한 지역임을 알고 있었다. 결국 1955년 남수단 지역에서 남부인들이 봉기했고 남북 대립의 골은 더 깊어만 갔다.¹⁷

1952년 7월 자유장교단 쿠데타로 이집트의 왕정이 무너지자, 수단에 대한 통치권을 주장하던 이집트의 요구도 철회되었다. 이때부터 수단은 입법 의회를 구성하고 자결을 위한 조건을 준비하는 등 독립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1953년 수단 초대 자치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가 치러졌다. 남수단 정치인들은 자유당을 창당하고 선

15 조상현, 금상문, “남북 수단 분쟁 연구,” 165.

16 이종택, “수단 내전 과정 연구: 이슬람화와 남부독립 투쟁,” 157-158.

17 조상현, 금상문, “남북 수단 분쟁 연구,” 166.

거에서 승리했으나, 수단 전체적으로는 국민통일당이 다수당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북수단은 남수단을 통제의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선거 후 자치의회는 공무원의 수단인화를 빌미로 남수단의 정부 고위직에 북부수단 출신들을 대거 임명하였다.¹⁸

1954년 10월 주바(Juba)에서 남수단 지도자들이 남수단의 정치적 장래를 토의한 결과, 연방제를 채택하고 남수단 자치정부 수립을 조건으로 이집트로부터 수단이 독립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북수단의 정당들은 남부에서 승인한 연방제를 단지 남수단이 수단 독립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하기 위한 전략로만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남부인들의 북부인들에 대한 불만이 더 고조되었고, 군대와 경찰을 징집했던 에콰토리아(Equatoria)의 토릿(Torit) 지역에 위치한 군부대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2차 대전 이후 제국주의와 식민지배가 약화되면서 영국은 더 이상 수단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토릿 반란에서 영국은 무능과 무기력을 그대로 노출했다. 영국은 단지 수단 자치입법회의가 원하는 독립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고, 이들의 독립을 진행시켰다. 이처럼 수단의 독립은 충분한 준비 없이 서둘러 추진되었다.¹⁹

4. 수단 독립에 따른 남북 간의 갈등

마침내 1956년 수단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지만 수단의 정치권은 민족연합당(NUP)과 움마당(UP)의 무대였다. 그들은 정치 일지에서 이슬람 역할을 확대시키는 것에 골몰했다. 더불어 이슬람 형제단은 꾸란과 순나에 근거한 헌법과 법률의 이슬람 국가 건설

18 Ibid., 167.

19 Ibid., 168.

을 주창했다. 결국 1957년 NUP과 UP는 샤리아를 근본으로 하는 이슬람 의회공화국 형태를 이루기로 했다. 독립국가 입법기관의 이와같은 결정은 남부 정당들의 출현을 가져왔다. 1958년에 창당한 남부연방당은 연방제 통치를 주장했고 정부가 이슬람과 기독교, 아랍어와 영어, 교육, 행정, 문화의 평등성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²⁰

첫 군사 쿠데타에 성공한 압부드(Abboud)는 남부에 대한 이슬람화와 아랍화 정책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슬람 교육 확대, 개종, 아랍어 공용어, 기독교 선교학교 정부 귀속과 외국선교사 추방, 그리고 주일 공휴일을 금요일로 변경하는 것을 시행했다. 그의 정책은 남부의 큰 저항과 학생 시위를 촉발시켰고, 남부의 정치적 각성과 무장 저항을 야기 시켰다. 1964년 군사정부를 무너뜨리고 들어선 문민정부는 남부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힘썼다. 여러 가지 제안들 중 남북 분리 독립국가 건설과 통일된 하나의 수단 내 연방제 실시가 포함되었다. 이어 남북대표자들 간에 원탁회의로 모여 남부문제를 다루었으나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²¹

1969년까지 정치권의 분열과 경제난이 계속되다가 니메이리(Nimeyri) 대령이 쿠데타에 성공하면서 문민정부는 무너졌다. 이슬람, 나세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을 표방한 그는 여러 번의 협상 끝에 남부측과 1972년 ‘아디스 아바바 협정(Addiss Ababa Agreement)’을 체결함으로써 남북 간의 화해의 장을 열었다. 협상의 내용은 인종, 피부,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의 평등, 남부 문화 정체성, 남부 관습에 맞는 법률제정권 인정과 이를 근거로 남부 자

20 이종택, “수단 내전 과정 연구: 이슬람화와 남부독립 투쟁,” 159.

21 Ibid., 160.

치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남수단에 자치권이 부여된 후, 내전이 종식되었고,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며, 아랍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하였다.²²

니메이리는 수단을 사회주의 국유화 정책으로부터 서구 자본주의로 전환하고자 시도했다. 그러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80억 달러의 외채와 1973년~1974년의 오일 쇼크와 1984년~1985년의 기근으로 더욱 어려움에 봉착했다. 그는 무슬림 형제단과 하싼 투라비에 도움 청하였고, 난관 극복책으로 이슬람화 추진, 남부 자치정부 해체, 남부의 새 유전을 북부로 편입하기 위한 행정개편, 북부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종글레이 운하 변경, 분권화법, 지방 정부법을 단행했다. 남부는 이 같은 일련의 조치에 대해 북부가 남부 석유자원과 수자원을 불법으로 착취해 가는 것으로 생각했다.

니메이리의 대남 정책에 반대한 존가랑(John Garang)은 수단 인민해방군(Sudan People's Liberation Army)과 수단인민해방운동(Sudan People's Liberation Movement)을 조직하였고, 모든 시민의 권리와 평등을 가져올 통일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남북의 두 독립국가 건설, 정치와 종교분리, 이슬람법 폐지, 세속헌법 제정, 남부 경제발전 등을 주장하면서 중앙정부에 맞서 무장투쟁을 시작했다.²³

니메이리의 경제개발정책 실패, 내전 악화, 식량과 연료가격 폭등은 곧 국민의 불만으로 이어졌고, 1985년 니메이리 정권은 민중봉기에 의해 막을 내렸다. 그 후 사디끄 마흐디가 정권을 잡았다가 1989년 민족이슬람전선(National Islamic Front)을 업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바시르(Bashir)에 의해 물러났다. 바시르는 이슬

22 Ibid.

23 Ibid., 161.

람 원리주의 정권을 수립하고 남부 문제를 원점으로 돌려놓았다.²⁴ 1992년에 나이지리아정부 주선으로 남부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원칙에 합의하고, 남부 권한 사항 등 근본 문제해결을 위해 추가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도 불구하고 산발적 무력 충돌이 지속되자 바시르는 1999년 12월 반군의 공격을 방어하는 명목으로 3개월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모든 국가 권력이 바시르에게 집중되었고, 중앙정부와 SPLM/A 간의 화해 가능성은 더욱 멀어져갔다.²⁵

IV. 수단으로부터 남수단의 분리와 독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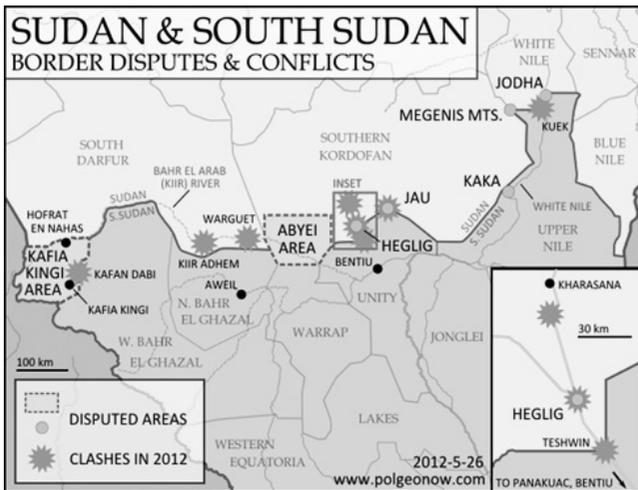
20여 년간 끝없이 계속되던 내전이 마침내 2005년 1월 중앙정부와 SPLM 간에 포괄적 평화협정(Comprehensive Peace Agreement) 체결로 중단되었다. 그 결과 휴전이 되었고 권력 및 자원 배분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다. 특별히 케냐 나이바샤에서는 자원배분에 관한 협정인 국가수입 분배협정(Agreement on Wealth Sharing During the Pre-Interim Period)으로 체결되었다. 중앙정부와 남부 자치정부가 석유 수출을 비롯한 모든 국가 수입을 각각 50% 분배하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2005년 7월 존 가랑의 갑작스런 항공기추락 사망 사건으로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가랑의 후임자 살바 키이르(Salva Kiir)가 전폭적으로 휴전을 지지하면서 평화협정은 유지되고 있다.²⁶

24 Ibid., 162.

25 구동희, 이정록, 노혜정, 임수진, 『세계의 분쟁』 (서울: 푸른길, 2019), 185.

26 조상현, 금상문, “남북 수단 분쟁 연구,” 173.

평화협정 이후, 헌법위원회 구성과 자원분배 협정에 따른 화폐 개혁과 세법개정과 은행제도의 개혁도 진행되었다. 또한 내전 시 매설된 지뢰 200만개를 UN 협조아래 제거하였고, UN과 각국의 원조로 도로와 전력 등 인프라가 복구되었다. 경제 개발도 미국과 서구의 도움으로 석유개발과 탐사, 송유관 증설로 원유수출에 따른 세입증가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국경지역과 유전이 개발되고 있는 몇 지역에서 아직도 갈등과 군사적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아비에이(Abyei), 카피아 킹지(Kafia Kingi), 바르 알 아랍 강(Bahr al-Arab River), 마게니스(Magenis), 카카(Kaka), 랭크/엘 제베레인(Renk/El Jebelein)을 둘러싸고 남북 수단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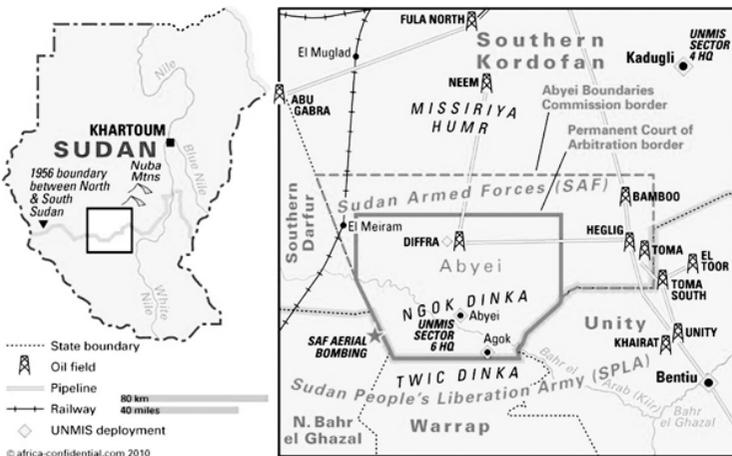


〈그림 1〉 수단과 남수단의 국경 분쟁

그 중 아비에이는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이곳을 포괄적 평화 협정 체결 시 ‘아비에이 분쟁해결 의정서’ 상, 남북 어느 쪽에 속

하지 않는 특별행정지역으로 지정했다. 아비에이에는 수단 전체 원유 생산의 1/4 이상 차지할 정도로 많은 채굴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북수단과 남수단의 국경지역에 위치하는 주요 원유생산지이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남부든 북부든 국가재건과 경제발전에 주요 자원조달원이 되기 때문에 어느 쪽도 양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2008년 5월 아비에이를 두고 수단 정부군과 남부 사이에 무력 충돌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포괄적 평화협정이 파괴될 위험에 처했었다. 충돌을 막기 위해 2009년 7월 22일 상설중재재판소가 아비에이 지역 경계에 대한 중재안을 발표하면서 긴장이 다소 완화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1년 6월 27일 UN은 안보리 결의안에 의거 남북 수단군의 아비에이 지역으로부터 철수와 비무장지대 형성 및 감시활동, 그리고 아비에이 지역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임무 수행을 위해 UN아비에이 임시군(UNISFA)을 파견했다.



〈그림 2〉 ABC (Abyei Boundaries Commission)와 PCA(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가 제안한 아비에이 국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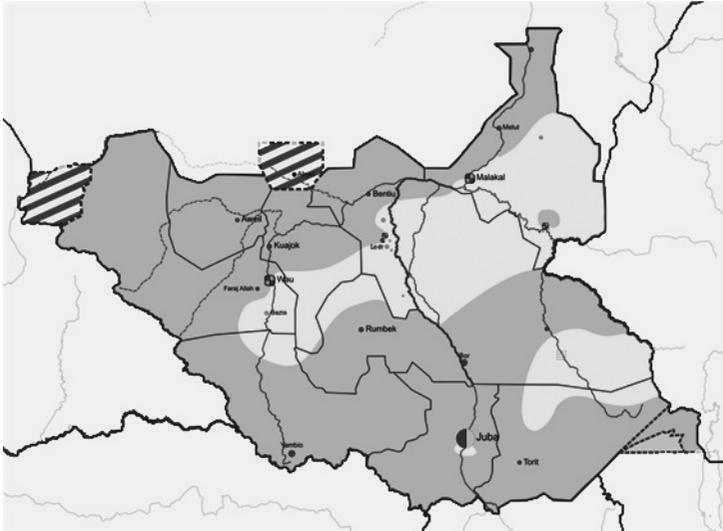
V. 남수단의 내전

1. 남수단의 내전과 그 경과

2011년 1월 9일, 남수단에서는 아프리카 연합체와 국제기구들의 감독 하에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남수단은 분리된 독립 공화국이 되었다. 국제사회는 신생국가 남수단을 열렬히 환영했다. 남수단 사람들은 국기를 휘날리며 국가를 부르며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로 환호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온 세계는 남수단에서 일어나는 대량학살과 도시와 마을이 파괴되는 소식을 들으며 충격에 빠졌다.

이 무력충돌의 주요인은 대통령 살바 키르(Salva Kiir)와 전 부통령 릭 마차르(Rick Machar)에 기인한다. 대통령 키르가 국영 방송에 출현하여 전 부통령 마차르와 몇몇이 군부 쿠데타를 모의한다고 비난했다.²⁷ 그러나 마차르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곧 바로 자신이 SPLM/A에 대항하는 SPLM/A-IO(In Opposition)의 리더인 것을 선포했다. 그와 함께 열 한 명이 SPLM/A 진영을 떠나 마차르와 합류하였다.

27 Geleta Aziza, "The Cause and Consequence of Conflict in South Sudan," *International Journal Political Science and Development* vol.5 no.1, (2017): 16.



Military situation in South Sudan updated as of 1 April 2016	
	Under control of the Government of South Sudan(남수단정부 통제지역)
	Under control of the Sudan People's Liberation Movement-in-Opposition (SPLM-IO 통제지역)
	Under control of the Government of Sudan(수단정부 통제지역)

〈그림 3〉 남수단의 군대 대치 상황(2016년 4월 현재)

둘 사이에 전투가 시작되자 우간다 군대가 남수단 정부군을 위해 파병되었고, 평화유지를 위해 UN유엔미션남수단(United Nations Mission in South Sudan; UNMISS)군이 파병되었다. 그 결과 2014년 1월 첫 번째 휴전협정을 맺지만 충돌로 수차례 파기되기를 거듭하였다. 2015년 8월 여러 나라들²⁸과 IGAD의 중재로 “타협 평화 협정(Compromise Peace Agreement)”이 체결되었다. 이 협

28 IGAD(Inter-Governmental Authority on Development; 개발 정부 간 기구)는 남수단 주변 8개국으로 구성된 기구이다. 이 기구의 8개국 외에도 아프리카 연합(AU), UN, 중국, 유럽연합, 미국, 영국, 노르웨이 등이 중재에 참여했다.

정으로 2015년 10월 우간다 군대는 남수단에서 자발적으로 철수했다. 반군의 지도자였던 다윗 야우(David Yau)와 가토스 갓쿠오스(Gathoth Gatkuoth)도 군대를 해산하고 정부군으로 귀속했으며 이어서 2016년 4월 마차르도 주바로 돌아와 부통령으로 임명되었다.

2015년 12월 29일 키르 대통령은 장관을 10명에서 28명으로 증원 임명하였다. 분쟁지역에 새 경계가 정해지면서 이권이 키르 대통령의 딩카부족에게 돌아갔다. 타 부족들은 키르의 이러한 행보가 원래 땅의 주인인 자기 부족들의 땅과 자원을 딩카족에게 주는 것이라 추측했다. 불만을 가진 쉘룩(Shilluk)지역 사람들이 “타이거 신군대(Tiger Faction New Forces;TFNF)”를 조직하니 요하니스 오키에크(Yohanis Okiech)가 지도자가 되었다.

그들은 SPLM-IO에 합류하는 것도, 타협 평화협정도 거부하고 1956년 이전 쉘룩 지역의 경계의 회복을 요구했다. 평화 협정 체결 1년 후, 딩카족 청년들과 남수단 SPLA 군인들이 와우(Wau) 지역의 페르티트(Fertit)를 공격하여 수십 명을 살상한다. 이로 인해 12만 명이 집과 마을을 등지고 피난했고, 페르티트 지역 군인들이 SPLM-IO에 합류하면서 와우 지역은 몇 달 동안 전쟁으로 소용돌이쳤다. 그 외 아잔테(Azande) 부족, 로투코(Lotuko) 부족이 반군에 합류했다.²⁹

2016년 7월에 대통령 키르와 부대통령 마차르가 주바에서 회의 하는 동안 밖에서 일어난 싸움은 삼시간에 전체 도시로 번졌다. 34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 주간에는 2만 6천명이 우간다로 피난했다. 기관총과 박격포와 탱크가 동원된 전투가 주바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다.³⁰ 공항과 UN베이스 부근에서도 총격전이 일

29 “South Sudan’s South: Conflict in the Equatorias,” *International Crisis Group* 25 May 2016(Accessed 15 August 2017).

30 “South Sudan Fighting: Gunfire Erupts again in Juba,” *Aljazeera*, 10 July 2016, (Accessed 20 August 2017).

어났고 마차르는 겨우 주바를 빠져 나갔다. 키르 대통령은 평화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마차르를 불러들였으나 SPLM-IO 측에서는 타반등 가이(Taban Deng Gai)를 마차르 대신 보냈다. 키르 정부는 그를 부통령에 지명했고, 마차르는 UN의 도움으로 남아공으로 도피했다.³¹

2016년 9월 마차르는 돌아와 무장투쟁을 촉구했고, SPLM-IO는 평화협정의 개정을 주장했다. 같은 시기에 반대정당 지도자인 램 아콜(Lam Akol)이 키르에 대항하는 국민민주주의운동(National Democratic Movement; NDM)이라는 새 진영을 창당한다.³² 쉴룩 타이 신군부 세력을 이끌던 요하니스는 램 아콜의 NDM와 합류하였고, 남수단 민주운동의 코브라진영의 지도자인 카리드 부트로스(Khalid Boutros)도 키르 정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2016년 7월 이후, 싸움은 대상류 나일(Greater Upper Nile)에서 에콰토리아의 천국이라 불리는 곳까지 번졌다. 에콰토리아 지역은 곡창지대로 적어도 6백만 명이 기아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되었다.³³ 11월 SPLM-IO는 예이(Yei)로 진격했고, 콩고 국경 근방 여러 마을을 점령했다. 이어 반군들은 말라칼(Malakal)을 공격했고, 2017년 1월에 많은 시민들이 남수단 제 2도시를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다.³⁴ 4월에도 바흐르 엘 가잘(Bahr el Ghazal), 라자(Raja), SPLM-IO의 본부가 있던 코독(Kodok)등에서 정부군과 반군의 전투가 이어졌다.

31 "South Sudan Conflict: Sacked VP Riek Machar Goes into Exile," *BBCNews*, 18 August 2016. (Accessed 20 August 2017).

32 "Lam Akol Forms Rebel Movement to Fight South Sudan Government," *Radio Tamazuj*, 27 September 2016. (Accessed 20 August 2017).

33 "Starvation Threat Numbers Soar in South Sudan," *Aljazeera*, 25 November 2016. (Accessed 20 August 2017).

34 "UNMISS: Situation Remains Tense in Malakal after Fighting," *Radio Tamazuj*, 30 January 2017. (Accessed 20 August 2017).

2017년 2월 씨릴로 스와카(Cirillo Swaka)가 정부관료를 사임하면서 민족구원전선(National Salvation Front; NSF/NAS)이라는 다른 반군을 형성했고 여러 반군 장교의 지지를 받아 세력을 확대했다. 5월 주요 반군들이 키르 대통령을 대항할 연합전선 작전에 합의했지만 공동의장 선출에 실패했다.³⁵

이들 반군의 연합으로 압박을 느낀 키르는 SPLA참모총장의 권한을 축소하려 시도했다. 딩카 민족주의자인 폴 말롱 아완(Paul Malong Awan)을 해임하고, 루오족인 제임스 아종가(James Ajongga)를 임명했다. 아완이 주바 정부를 떠날 때 마티앙(Mathiang) 지역 시민군도 그를 따랐다. 5월 말, 키르 대통령은 일방적인 휴전을 선포했다.³⁶

7월 초부터 SPLM-IO의 요새인 파각(Pagak) 지역에 무력 충돌이 증가했기 때문에 UN은 7월 7일 25명의 UN 봉사자들을 철수시켰다.³⁷ 그리고 7월 27일, 반군 지역 마이위트(Maiwut)가 정부군에 의해 점령되었고, 7월 30일 중앙 에콰토리아에서도 반군 세력 간 무력충돌이 일어났다.³⁸

2. 남수단 내전의 원인

겔레타 아지자(Geleta Aziza)는 “남수단의 갈등의 원인과 결과”라는 최근 저널³⁹에서 남수단 내전의 아홉 가지 요인에 대해 다

35 “South Sudan Opposition Groups Join Forces against Government,” *Africa News*, 15 March 2017. (Accessed 19 August 2017).

36 “U.S., Britain, U.N. Wary of South Sudan Ceasefire Announcement,” *Reuters*, 24 May 2017.

37 “Far too little to Celebrate as South Sudan Observes Its Independence,” *Africa Times*, 9 July (Accessed 20 August 2017).

38 “Fighting between South Sudan Rival Rebel Groups Wounds Two,” *Reuters*, 30 July 2017.

39 Aziza, “The Cause and Consequence of Conflict in South Sudan,” 17–19.

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 1) 평화 협정 후 2008년부터 이어진 세력다툼
- 2) 부패한 정부와 특정 종족 혜택과 불법 사면의 만연
- 3) 국가 발전보다 군사력 강화와 신무기 비축용도의 국가재정
- 4) 중재기관 및 리더십 부재
- 5) 지도자들의 종족적 특성과 과거 상흔의 도구화
- 6) 민주주의 기반의 국가전체 균형적 개발의 실패
- 7) 국가건설 및 개발보다 국가형성과 권력구조에 집중한 지도자들
- 8) 오일(oil) 의존 국가재정
- 9) 덩카족(SPLM)과 누르족(SPLM-IO)의 분열과 갈등이라고 지적했다.

필자는 아지자가 아프리카인 입장에서 남수단 내전의 요인을 매우 적절하게 정리했다고 생각한다. 그와 더불어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견해를 종합하면 종족주의, 군부독재정치, 관료부정부패, 사회복지 부재 등을 남수단 내전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남수단 분쟁의 결과

남수단 분쟁은 무고한 시민들을 극도의 비참함과 황폐함으로 몰아 가장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이르게 했다. 인권 위원회, UN 평화유지군, 아프리카연합, 국제기구들의 계속된 보도에 의하면 민간인에 대해 계획적이며, 폭력적인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다. UN은 수단을 시리아, 이라크, 예멘과 같은 3등급(최고 수준) 인도주의적 긴급 상황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UN은 수단

의 내전 발발 이후 공식적으로 약 5만 명이 죽었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누구도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다. 약 2백 7십만이 피난민이 되었고, 그들 중 백 7십만이 IDP(Internally Displaced People; 국내 흩어진 사람) 캠프에 머물러 있고, 백만은 주변 국가, 우간다, 케냐, 수단(북수단)에 흩어져 난민이 되었다.⁴⁰

대체로 타 종족에 의해 희생되었는데, 정부군과 반정부군에 의해 민간인들이 집이나 마을, 교회나 모스크, 병원과 정부시설에서 공격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 인도주의적 범죄들, 즉 민간인 살상, 강간, 성적 범죄, 임의 체포, 구금, 납치, 자유 박탈, 실종 등이 발생했다. 기업투자의 중단, 생산과 고용기회의 감소, 농업과 목축 주기 상실, 상업 도로와 현지시장 폐쇄 등 치명적인 경제 손실을 가져왔고 의료, 교육, 교통과 통신 시설이 파괴되었다. 한 공동체 내에서도 종족 간 신뢰가 상실되었고, 집단마다 갈등이 심화되었다. 그 외 AIDS 확산과 병원시설의 부족, 기근과 식량부족, 식수공급문제도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VI. 남수단의 기독교 선교 활동

현재 남수단 내전으로 인해 대부분의 NGO와 선교 단체들이 철수한 상황이므로 전체적인 기독교 선교활동에 대해 언급하기는 쉽지 않다. 필자는 본인이 소속된 AIM(Africa Inland Mission)의 남수단 선교사역과 관련지어 소개하려고 한다.

AIM은 1954년 CMS와 수단성공회의 요청으로 오파리(Opari)와

40 Lauren Ploch Blanchard, "Conflict in South Sudan and the Challenges Ahead,"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September 22, (2016):4.

토릿(Torit)지역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첫 선교단을 이끈 사람은 폴 바이스(Paul Buysse)였으며 AIM은 신속하게 수단 남동쪽에 위치한 마디(Madi), 아홀리(Acholi), 로투코(Lotuko)에서 사역을 전개했다.⁴¹ 현재 동에콰토리아(Eastern Equatoria)주에 속한 지역들이다. 1962년 수단 정부는 ‘선교단체 행동’ (Missionary Societies Act) 법안을 공포하면서 무슬림 대상 선교를 금했고, 몇몇 지역에서는 선교사들이 기독교인이나 다른 종교인에게 사역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이어 1963년 정부는 선교사들이 반군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선교사역을 중단시켰다.⁴²

2005년 남수단이 독립하면서 AIM선교사들이 토릿 지역에 들어가 사역을 시작했다. 선교사들은 팀을 이루어 사역했는데, 2006년 로쿠폭(Lokutok)에서 TIMO(Training In Ministry Outreach) 사역⁴³이 2년간 지속되었다. 2013년에는 로핏(Lopit)에서 또 다른 TIMO팀이 사역을 했다. 2016년에는 보야 힐(Boya Hills)에 사는 라림(Laarim)족에게 팀이 들어가 사역했다. 2018년부터 토릿 팀 사역을 전개하려고 준비 중이다. 그 외 토포사(Toposa), 디딩가(Didinga)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사역이 진행 중이다.

2017년 5월 남수단 내전이 악화되었을 때 AIM을 비롯한 대다수 선교사들이 철수했으나 내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지역에는 아직도 선교사들이 남아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41 Dick Anderson, *We felt like Grasshoppers* (Nottingham: Crossway Books, 1994), 172–173.

42 Ibid., 177.

43 TIMO는 AIM선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현장 도제 훈련으로 2년간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 선교현장과 이론을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https://aimint.org/timo/>

VII. 한국선교사의 남수단 선교사역 참여에 대한 제안

비록 남수단이 내전으로 인해 안전에 큰 위협을 받고 있지만,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 선교사가 사역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 그리고 현재 지속되고 있는 내전도 종전될 날이 올 것이다. 이러한 복음에 열린 상황을 기대하며 한국선교사들이 남수단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하려고 한다.

1. 현재 남수단 상황에 맞는 선교사 자질 갖추기

AIM의 한 선교사 부부가 아직 남수단에 사역하고 있다. 이들은 수단에 들어가기 전 케냐에서 장기간 사역을 했었고 머지않아 은퇴를 앞둔 베테랑 선교사들이다. 한국선교사를 옆에서 바라본 동료 선교사의 입장에서 한국 선교사들에게 조언이자 충고를 해주었다. 그들은 만약 한국 선교사들이 남수단 사역을 위해 들어온다면, 민족중심주의와 한국인끼리만 교제하는 것을 넘어서야 하고, 돈을 사용해서 선교를 진행시키지 말아야 하며 현지인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현지인들과 함께 살며, 현지인들을 경멸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기꺼이 따라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매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선교사들이 된다면, 한국선교사들은 분명 남수단에서 엄청난 사역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말은 언뜻 보면 선교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인 것 같지만, 지난 수백 년 역사 속에서 외국인들과 북수단의 무슬림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고, 참담하게 인권을 유린 당해 왔고, 자국의 지도자들과 종족들에게 무참히 살상을 당한, 남

수단 사람들을 복음으로 섬기고자 한다면 노 선교사들의 지혜로운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선교의 열린 기회를 제자 삼는 사역으로 만들기

지난 수십 년 간 남수단 상황을 보면, 현재 열려 있는 선교의 기회가 언제든 닫힐 수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 사역의 철수를 염두에 둔 선교사는 최우선 사역에 전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필자는 남수단과 같은 지역에서 최우선 사역은 무엇보다 제자 삼는 사역이라고 생각한다. 선교사가 철수하더라도 남아 있게 될 기독교인들이 계속 주님을 따르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사역이다.

3. 리더십 개발의 중요성과 리더십 준비

남수단이 안고 있는 문제의 총체적 결함의 핵심은 리더십 부재라 할 수 있다. 정권이 바뀌고 정치조직이 개편되어도 바른 지도자가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긍정적인 변화와 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 남수단 내전의 여러 요인들 중 소수의 엘리트 계층이 국가 대부분의 재정을 사유화하고 국가개발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 지적받는다. 지금 남수단에는 정치, 군사, 사회, 경제,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수많은 준비된 지도자들이 필요하다. 단시간에 모든 필요한 지도자를 다 양성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리더십 개발을 시작해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는 제자들이 정치와 경제 등 남수단 사회건설의 전반에서 헌신된 지도자들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젊은이들을 준비시켜야 한다.

4. 미전도종족 사역의 시급성

남수단에는 아직도 미전도 종족들이 여럿 남아있다. 아직은 현지교회가 스스로 선교적 사역을 감당해 내기 어려운 단계이다. 조 금이나마 선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이들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필자는 위에서 AIM의 라림족 사역을 언급했다. 2016년 바일러스(Bylers) 부부와 세 가정 그리고 독신 선교사 넷이 한 팀으로 라림족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며 복음을 전했다. 현재 약 라림족 50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영접했다. 디딩가족의 경우, 현재 선교사 한 가정만 남아 사역하면서 다른 선교사들과의 동역을 기다리고 있다.

5. 자발적으로 재생산하는 교회개혁

내전 상황이 심각한 접전지에 살던 약 3백만(전체 천 2백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다. 너무도 위험하기에 생존을 위해 집을 떠났을 것이다. 아직 9백만 명은 그래도 자기들의 마을에 남아 살고 있다. 비록 전쟁이 있어도 어떤 곳에서는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다. 함께 모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배를 통해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한다. 오랜 내전으로 교회 건물이나 대부분의 공공건물들은 파괴되었다. 실제로 이런 곳에 모이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다. 조지 패터슨(George Patterson)은 *The Spontaneous Multiplication of Churches*(자발적으로 배가하는 교회)에서 네 가지를 충실히 할 때 제자들을 배가할 수 있다고 했다. 1) 당신이 제자 삼는 사람들을 알고 사랑하라. 2) 당신의 제자들이 다른 이들을 즉시 제자 삼

www.kci.go.kr

을 수 있도록 동원하라. 3)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기본적 명령과 사랑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라. 주님 기본명령은 회개와 믿음, 세례, 하나님과 이웃 사랑, 성찬, 기도, 구제, 제자삼기이다. 4) 교회를 재생산하기 위해 제자와 교회 사이에 사랑을 쌓고 책임을 감당하는 관계로 발전하도록 돕는다.⁴⁴

6. IDP 캠프와 난민 사역

UN 통계에 의하면 남수단 인구 중 2백 7십만 명이 IDP 캠프와 난민이 되어 주변 나라에 흩어져 있다. 우간다와 남수단 국경 지역에는 난민 캠프가 여럿 있다. 이미 우간다에서 여러 선교사들이 난민 사역을 하고 있고, 수단에서도 남수단 내전의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있지만 더 많은 선교사와 사역자들이 필요하다. 이슬람파트너십에서 추천하는 행동지침은 난민사역자들이 참고할 중요한 가이드라인이라 보여진다. 기도, 단기선교(실버선교, 어린이선교, 미디어선교), 장기선교(공급과 수급, 현지교회 협력 강화, 펀드, 사역언어-미디어공급, 디아스포라 교회와 네트워크 강화, 상호책임과 연대 지속), 후원(재정, 네트워크), 파트너십(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모임, UNHCR과 파트너십, 지역 코디네이터, 전체 코디, 난민사역 네트워킹, 파트너십의 투명성과 신뢰 쌓기), 교육(교회교육, 난민대면 기회, 한국교회 인식전환, 이슬람파트너십 홍보, 난민과 가정 연계, 기독교단체의 전략적 접근) 등이다.⁴⁵

44 George Patterson, "The Spontaneous Multiplication of Churches," in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3rd Edition, eds. Ralph Winter, Steven Hawthorne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1999), 595-605.

45 이슬람파트너십, 「난민을 생각하며」 (서울: 도서출판 침탑, 2016), 104-106.

VIII. 나가는 말

남수단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심한 천대와 멸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지내왔다. 7세기 이후 이슬람의 수단 진출과 더불어 남수단 지역에서 노예무역이 더욱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마쿠리안 왕국은 이집트에 필요한 노예를, 파티마왕조는 흑인노예 병사를, 무함마드 알리 왕은 금과 노예를 남수단에서 조달해 갔다. 아프리카 민족주의를 외친 마흐디 통치 때도 수단의 군인들과 국가 재정의 충당을 위해서 남수단에서 노예를 데려갔다. 이렇게 수 세기 동안 노예 공급지로 알려진 땅에서 살아온 남수단 사람들, 그들은 노예의 후손들이라는 이유로 자존감이 매우 낮고, 이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남수단이 한 국가로서 드디어 독립을 쟁취했다. 자신들의 국가로서 정체성과 인간으로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수의 엘리트 계층 지도자들의 야욕과 패권 다툼으로 전 국민이 굶주림과 질병, 두려움과 혼란에 싸인 채 삶과 죽음의 현장을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다. 남수단 사람들이 위로받고,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 곳도 없다. 소망과 능력의 복음이 절실하고 시급하게 필요하다. 이 복음을 전할 선교사는 잘 준비되어야 한다. 남수단 사람들과 함께 애통하며 위로할 수 있는 선교사, 그들을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선교사,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할 수 있는 헌신된 선교사들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구동희, 이정록, 노혜정, 임수진. 『세계의 분쟁』. 서울: 푸른길, 2019.
- 김광수. “에티오피아 악습 문명의 정체성: 아프리카 중심주의적 시각에서.” 『한국아프리카학회지』 제 37집. (2012):75-122.
- 서상현. 『아프리카의 이해』. 서울: 다해. 2004.
- 이슬람파트너십, 『난민을 생각하며』. 서울: 도서출판 첨탑. 2016.
- 이종택. “수단 내전 과정 연구: 이슬람화와 남부독립 투쟁.”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7권 1호. (1997):151-168.
- 조상현, 금상문. “남북 수단 분쟁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7권 제4호. (2013):155-179.

Albino, Oliver. *The Sudan: A Southern Viewpoin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Anderson, Dick. *We felt like Grasshoppers*. Nottingham: Crossway Books, 1994.

Anderson, William B. & Kalu, Ogbu U. “Christianity in Sudan and Ethiopia.” *African Christianity: An African Story*, ed. Kalu, Ogbu. Pretoria: Dept. of Church History, University of Pretoria, 2013. 75-116.

Aziza, Geleta. “The Cause and Consequence of Conflict in South Sudan.” *International Journal Political Science and Development* vol, 5 no.1, (2017): 15-21.

Blanchard, Lauren Ploch. “Conflict in South Sudan and the Challenges Ahead.”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www.kci.go.kr

September 22, 2016.

Iliffe, John. *Africans: The History of A Contin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International Crisis Group. “South Sudan’s South: Conflict in the Equatorias.” 25 May 2016. Accessed 15 August 2017.

Johnson, Douglas H. *The Root Causes of Sudan’s Civil Wars: Peace or Truce*. Kampala: Fountain Publisher, 2011.

Kaufmann, Eric P. *Rethinking Ethnicity: Majority Groups and Dominant Minorities*. London: Routledge, 2004. Accessed 22 August 2017.

Patterson, George. “The Spontaneous Multiplication of Churches,” in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3rd Edition, eds. Ralph Winter, Steven Hawthorne.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1999):595–605.

Africa News. “South Sudan Opposition Groups Join Forces against Government.” 15 March 2017. Accessed 19 August 2017.

Africa Times. “Far too little to Celebrate as South Sudan Observes Its Independence.” 9 July 2017. Accessed 20 August 2017.

Aljazeera. “South Sudan Fighting: Gunfire Erupts again in Juba.” 10 July 2016. Accessed 20 August 2017.

_____. “Starvation Threat Numbers Soar in South Sudan.” 25 November 2016. Accessed 20 August 2017.

BBC News. “South Sudan conflict: Sacked VP Riek Machar Goes into Exile.” 18 August 2016. <http://www.bbc.com/news/world-africa-37116862>. Accessed 20 August 2017.

www.kci.go.kr

Radio Tamazuj. “Lam Akol Forms Rebel Movement to Fight South Sudan government.” 27 September 2016. Accessed 20 August 2017.

_____. “UNMISS: Situation Remains Tense in Malakal after Fighting.” 30 January 2017. Accessed 20 August 2017.

Reuters. “U. S., Britain, U. N. Wary of South Sudan Ceasefire Announcement.” 24 May 2017.

_____. “Fighting between South Sudan Rival Rebel Groups Wounds Two.” 30 July 2017.

■ ABSTRACT

A Recent Situation of South Sudan and Christian Missions

Byung Kwon Kang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recent conditions of civil wars and of Christian missions in South Sudan and offer some suggestions guided by the following five questions: Why did this tragic civil war occur in South Sudan, a country so rich with water and oil? Why did the British give up establishing two separate independent nations at the end of the colonial rule when Sudan suffered ceaseless internal conflicts stemming from irreconcilable difference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How did the many rebel groups in South Sudan come to exist? Why do they fight with the South Sudanese government? How could Korean missionaries effectively contribute in a country as deeply wounded as South Sudan? The author begins the article with some general information and brief historical background of South Sudan in order to demonstrate a multilayered complexity of the current situation. Section two focuses on three major periods prior to the 19th century that continue to fuel the conflicts between the North and

www.kci.go.kr

the South due to systematic discrimination and exploitation against the Southerners: The reign of Egypt, the reign of Anglo-Egypt, and the period after its independence. Section three discusses a progressive development of South Sudan's from the referendum on independence in January 2011 to the signing of the Comprehensive Peace Agreement in January 2015 between Sudanese government and Sudan's People's Liberation Movement (SPLM). Section four analyzes the course of civil wars and the formation of South Sudan. Lastly, section five provides a summary of a few missionary activities, thereby suggesting how Korean missionaries can contribute in this country.

Keywords: Sudan, South Sudan, South Sudan Civil War, Comprehensive Peace Agreement, Sudan People's Liberation Movement(SPLM), Sudan People's Liberation Movement in Opposition(SPLM-IO)